

# 할머니의 하늘

남향초등학교

6학년 조예림

사람들은 큰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금, 은, 보화가 넘쳐나는 곳,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귀중한 보석들. 하지만 동전 한 개, 작은 물건 같은 소소한 것들에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쳐 가는 아름다움도 있다. 마치 흰여울 마을처럼.

흰여울 마을은 산과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고양이와 강아지가 함께 뛰어 놀고 누구나 쉴 수 있는 작은 의자, 색색깔의 신호등, 눈이 즐거운 벽화까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지만 평범한 것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 각각의 이유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늘이 맑은 날에는 파도위에 조심스럽게 앉아있는 윤슬도 평범한 계단까지도 아름다워 보인다. 윤슬은 반짝거리서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계단은 왜 아름답냐고 의아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낮은 곳 보다 높은 곳이 하늘과 더 가까워지듯 계단을 한칸, 두칸 올라가다 보면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늘과 점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해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생긴 사람, 돈 잘버는 사람, 인기있는 사람 또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기있는 것, 예쁜 것들을 좋아한다. 도대체 왜 그런것들만 좋아할까? 혹여 "난 소소한것만 좋아해, 난 큰걸 바라지 않아"라고 해도 자기가 가진, 가지고 싶은 큰 것들이 있다. 이 모든것의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희망을 잃고 절망해도 푸른 하늘을 보며 다시 한줄기의 빛이 내려앉는 할머니의 하늘처럼.

우리 할머니는 하늘을 안보신다. 아니 잘못보신다. 고개를 올려도 딱딱하고 가로막힌 답답한 병실 천장밖에 보이지 않는다. 병원에 처음 오셨을때 할머니는 절망으로 가득하였지만 지금은 이 정도

인것 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며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 가끔 할머니와 병실을 나와 산책을 하면 그때마다 할머니는 “갑갑한 병실에서 나와 맑은 하늘을 보니 빨리 집에 가고 싶구나” 하셨다. 잠깐의 맑은 하늘이 할머니의 한줄기 희망이 되어 얼굴로 표현하시진 않지만, 마음속은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으신 것 같다.

하늘을 보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도 세상이 달라보일 수 있다. 나를 좋게 보지 않은 시선들이 나를 감싸주는 눈빛으로, 나를 피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배려해주는처럼.

넓은 하늘은 한결같다. 언제 어떤곳에 있어도 내 앞에 자리해있다. 힘든일이 있거나 슬플때 올려다 보면 푸른 얼굴로 싱긋 웃으며 나를 토닥여 준다. 하늘은 내머리 위 어딘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해 있다. 웬지 이런 생각만으로도 웃음이 나온다. 맑은 웃음. 하늘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웃음을 주는 최고의 친구이다.